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평가와 비행성향행동과의 관계 : 관찰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Delinquency-Oriented  
Behavior : Observational Study.\*

오미경(Mi Kyoung Oh)<sup>1)</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and delinquency through observational method. The subjects were 30children(normal: 15, ADHD: 15) between 4-6 elementary school grade. Instruments used Parent-Child Interaction Assessment(P-CIPA), Inventory of Delinquency-Oriented Behavior and Korea Children Behavior Check List(K-CBCL).

Results showed that following : 1) ADHD affect the delinquency-oriented behavior;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between normal children group and ADHD children group; and 3)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and delinquency.

**Key Words**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모-자녀상호작용(mother-child interaction), 놀이평가(play assessment), 비행(delinquency),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

### I. 서 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그리고 충동성이라는

세 가지 행동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주의집중시간이 짧아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항시 바쁘게 뛰고 침착하지 못하고, 마치 발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 그리고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며, 화를 터트리거나 감정이 격하기 쉽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 이 논문은 2001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37-CA0068)

<sup>1)</sup> 한국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Mi Kyoung Oh, Korea Institute of Brain Science, 3F, LG Twintel Bldg., 157-8, Samsung-Dong, Kangnam-Gu, Seoul 135-090, Korea E-mail : mkoh82@hanmail.net

ADHD 아동은 물을 엮지르고 물건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사소한 사고뿐 아니라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

이러한 일차적 행동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축적되어 이차적인 행동문제가 야기된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매를 들기도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많은 아이들 앞에서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벌을 준다. 친구들은 놀이에 끼워주지 않고 따돌리기 쉽다.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ADHD아동은 항상 외롭고 세상에 대한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우울증, 학습부진, 만성적 건강문제, 언어문제 및 야뇨증 등이 동반된다.

또한 임상에 의뢰된 ADHD 아동의 35%에서 60%가 7세 또는 그 후에 반항성장애(Opositional Deviant Disorder : ODD) 진단기준에 들어맞고 (Barkley, 1990) ODD는 더 심각한 상태인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 CD)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DHD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CD가 있는 아동은 사회규칙을 깨뜨리고 학교에서 혹은 경찰들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높은 위험에 처해있다. 그들은 싸움을 하고, 사기를 치고, 훔치고, 불을 지르고, 재산을 파괴하고, 또는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ADHD아동의 30%에서 50%가 결국은 품행장애로 발전하기 때문에(Barkley, 1990) ADHD는 ODD와 CD의 가장 확실한 예언자 중의 하나이며(Klein, 1992; Loeber, 1990; Mannuzza & Taylor, 1995), 실제로 많은 연구들(Biederman, Faraone, Milberger, Jetton, Chen, Mick, Greene & Russell, 1996; Brown & Borden, 1986; Satterfield, Swanson, Schell & Lee, 1994; Taylor, Chadwick, Hepinstall & Danckaerts, 1996; Weiss & Hechtman, 1993)은 도둑질, 절도, 가출, 방화와 같은 반사회

적 행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아동기에 ADHD가 있었던 아동들에게서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외국에서는 ADHD와 비행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ADHD의 구체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영향이나 신경생물학적 영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약물이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추후검사 연구들은 약물이 학업성취, 동료관계,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적응과 관련된 행동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효과는 없는(Pelham, 1993) 것으로 나타나면서 ADHD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요법과 함께 부모관리훈련 및 여러 가지 치료 및 교육을 동시에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약물치료의 한계에 대한 인식 및 중다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ADHD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치료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정신과적 증상의 평가, 진단, 치료에 있어 유전적, 신경학적, 가족적, 사회적 맥락 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체계 관점과, 장애아의 발달적,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발달적 관점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Barkley, 1990).

최근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ADHD 증상의 평가, 진단, 치료에 아동과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작용하는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ADHD아동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평가자가 임의로 평가하는 것은 편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교사나 부모의 일방적인 평정 역시 상황과 평정자간의 불일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특성 또는 부모의 행동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Mash, Terdal, 1991).

실제로, ADHD아동과 어머니의 상호행동을 직접 관찰한 최초의 연구에서 Campbell(1973; 1975)은 ADHD아동이 정상아동에 비해 과제 수행 기간에 어머니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시작 (initiate)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많이 하고, 과제를 완료하는 데 요청이나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의 어머니도 정상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부정적이며, 제안이나, 인정, 자녀의 충동통제를 위한 야단치기, 지시 등을 더 많이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모-자녀상호작용 관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제시되면서 상호행동의 방향성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arkley, 1987; Forehand & McMahon, 1981; Smith, 2000). 이와 같은 인간의 정신병리 발달에 대한 상호작용적 관점들은 아동기 정신병리 및 행동장애에 있어 아동 또는 부모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그 원인의 규명 및 치료에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거나 또는 과잉행동과 같이 아동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일방적인 관점보다는 교류적이고 양방향적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타당할 수 있다. 그리하여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동이 비행성향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구체적 접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ADHD아동의 모-자녀상호작용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아동들의 가장 자연스런 행위인 놀이가 치료적 중재 과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의 확산과 함께, 실제로 부적응아동의 놀이치료(김현희, 1996; 송영혜·박진희(1996)가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어 비행성향아동들의 놀이치료 중재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는 아이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며 놀이가 나타내는 정보는 그 풍부함과 깊이 면에서 필적할 수 없다. 성인들의 꿈처럼, 아동들의 놀이는 무의식에 대한 비길 수 없는 접근을 제공한다(Gitlin-Weiner 등, 2000). 또한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이를 통해 아이들의 관심사, 인지적 양식, 능력, 그리고 기질 등 아동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놀이는 아동들로 하여금 민감하고, 위협적이고, 혐오스럽고 혹은 금기시되는 문제들로부터 안전한 거리감을 얻도록 해주며, 언어적인 면접에서는 부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표현하고 회상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유롭게 해준다. 또한 놀이감들은 그 자체로서 흥미를 유발하며 아동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내담자인 아동의 협조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관찰의 타당도를 증가시킨다.

한 연구(Meyers, McBride, & Peterson, 1996)는 놀이에 근거한 평가와 전통적인 평가를 비교하였는데, 놀이에 근거한 평가가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 그리고 운동기술에 대해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구에서는 아동을 타당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동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표준적인 놀이 진단 및 평가도

구의 개발이 최근에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의 역사가 짧고 그리고 놀이치료를 위한 아동의 정보수집의 기초로서 놀이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 놀이평가에 대한 기초지식 및 방법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놀이라고 하는 매체를 사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ADHD특성이 아동의 비행성향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고, 모-자녀 상호작용을 놀이 상황에서 평가하여 일반아동과 ADHD아동 간에 모-자녀상호작용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이러한 모-자녀간의 상호작용놀이평가와 비행성향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 근거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ADHD특성은 아동의 비행성향행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 <연구문제 2>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는 ADHD집단과 일반아동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와 비행성향행동 간에 관계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대구시에 소재한 10개 초등학교 4~6학년 남아 115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하였다. 최종분석

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ADHD아동(15명)과 일반아동(15명)을 포함하여 30명의 아동과 그들의 부모로 하였다.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골고루 분포된 10개 초등학교 지역을 표집 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최종분석 연구대상을 선정한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K-CBCL의 주의집중문제(Attention Problem; AP)척도에서 T점수가 65 이상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임상군과 정상군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보고(김지혜, 소유경, 이임순 및 홍성도, 2000)에 근거하여, K-CBCL의 AP척도의 점수가 10점 이상(T점수 65 이상)을 ADHD아동으로 하고 그 이하의 점수는 일반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다른 장애가 동반되어 ADHD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K-CBCL의 다른 척도(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비행, 공격성)에서 T점수가 65 이상을 보이는 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측정도구

연구문제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질문지와 실험실 관찰법을 사용하였는데, 질문지의 내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과 함께 아동이 응답하는 비행성향 참여정도를 묻는 문항(45문항), 어머니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K-CBCL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모와 아동으로 하여금 놀이감이 있는 실험실에서 10개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모-자녀상호작용놀이의 평가자료로 사용하였다.

#### 비행성향척도

비행성향척도는 박미정(1993)이 '국민학교 아동의 비행회경향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비행경향을 진단하기 위해 고안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박미정은 초등학생의 비행성향을 진단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일본의 大黒靜治(1964)가 임상장면에서 비행소년에게 많이 보여지는 특성과 MMPI 등 기존의 검사지로부터 발췌한 항목으로 개발한 ‘비행경향진단테스트’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 비행경향진단지는 가정 내 부적응도, 학교내 부적응도, 대인적 부적응도, 사회규준 이탈도 및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에서 0~12점은 비행경향성이 없다, 13~16점은 비행경향성이 약간 있다, 17~20은 비행경향성이 있다, 21 이상은 비행경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상관계수는 .83이며, Cronbach  $\alpha$ 는 .78이다.

###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K-CBCL을 사용하였다. K-CBCL은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로 이는 Achenbach(1991)가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 : CBCL)을 한국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의 중요한 특징은 부모 혹은 아동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어른이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표준화된 형태로 기록하는 행동평가 도구라는 것이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으로는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및 공격성이 있으며, 이 척도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는 Smith(2000)가 개

발한 P-CIPA(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예비검사를 통하여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문항이나 평가가 애매한 문항을 제외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본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P-CIPA는 모-자녀 상호작용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수량화하려는 시도에서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Mash(1991)의 반응유목 행렬표(response-class matrix)에 근거하고 있는데 반응유목행렬표는 아동주도행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부모주도행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즉, 아동의 선행행동에 따른 부모의 결과반응과 부모의 선행행동에 따른 아동의 결과반응을 구분하게 해준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부적응 아동의 평가 및 치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준다. P-CIPA는 Mash의 이러한 시도를 고려하여 항목에 대해 1점에서 9점까지로 상호작용의 질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부록1 참조).

본 연구자가 사용한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 항목은 ‘모의 정서’, ‘아동에 대한 모의 간섭’, ‘아동에 대한 모의 칭찬’, ‘아동에 대한 모의 관심’, ‘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 ‘모의 명령의 빈도’, ‘모의 처벌수준’, ‘아동의 사회적 반응’, ‘아동의 활동수준’, ‘아동의 공격성’, ‘모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반응’, ‘모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및 ‘모의 명령에 대한 아동의 순종’의 14항목으로 구성된다.

P-CIPA는 자유놀이 15분과 과제놀이 15분 동안 아동을 관찰하게 되는데 과제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P-CIPA에서의 과제는 주로 유아들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예 : 신발과 양말을 벗어 제자리에 놓기, 15조각 퍼즐 맞추기). 본 연구에서는 Marschak이 발표한

〈표 1〉 P-CIPA 평가방법의 예

모	평 가	자	녀	평 가
“자, 놀이찰흙으로 사람을 만들라고 하네, 자, 우리 누구 만들까?”	정서 4 관심 7	(판게임에 열중해있다 결눈으로 힐끗 보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다)		질문반응5
“지금은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 카드에 적힌 대로 해야 되는 시간이야”(아동이 하고 있는 판게임을 접어버린다)	간섭 5	(모가 접은 판게임을 다시 가지고 가서 펼치면서) “그렇지만 잠깐만요. 다 되간단 말이에요(짜증 섞인 목소리로). 좀만.....”		순종1 질문반응3
“지금은 게임하는 시간이 아니잖아!”(다시 아동의 판게임을 정리한다)	정서 3 간섭 3	“알았어요. 뭐 만들어요?”		순종5

MIM (Marschak Interaction Method)의 과제내용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과제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과제내용인 활동카드의 지시문은 1. 엄마와 아동은 10분 동안 집에서 하는 것처럼 놀아보세요. 2. 엄마는 눈가리개로 아동의 눈을 가리고 “나를 찾아라”고 하세요. 3. 아동과 엄마 두 사람에게 친숙한 게임을 하세요. 4. 엄마와 아동은 놀이찰흙으로 함께 사람을 만드세요. 5. 엄마는 아동에게 “눈을 감고 이 방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 줘”라고 하세요. 6. 엄마와 아동은 디자인 책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보세요. 7. 엄마와 아동은 3라운드의 엄지손가락 레슬링 게임을 하세요. 8. 엄마와 아동은 함께 우리집을 그리세요. 9. 엄마는 혼자서 1분 동안 이 방 밖으로 나가 있다가 돌아오세요. 10. 엄마는 아동에게 “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말하세요이다.

평가방법은, 우선 아동발달 및 놀이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학생 5명을 P-CIPA 평가체제에 대해 훈련시킨 후, 피험자의 표본을 평가하면서 평가기간동안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평가상의 문제와 평가자 간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는 평가자간에 일치된 빈도를 전체 빈도로 나누어 구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평가자간의 일치 정도가 65%에서 95% 수준이었다. 대학원생들은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아동의 행동과 부모의 행동에 대해 프로토콜을 풀어서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행동이 나오면 그 항목의 명칭을 해당 칸에 적어 넣고 점수를 평가하여 같은 칸에 적어 넣는다(표 1 참조).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 P-CIPA의 관찰 체계에 근거하여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 예를 들어, 칭찬이 5번 관찰되었고, 각 관찰 점수는 각각 7점, 8점, 8점 5점, 7점이었다면, 칭찬항목의 점수는 7점이 된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구시에 위치한 10개 초등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자료수집을 위해 ‘무료심리검사’를 제공한다고 알리고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검사날짜를 미리 약속하고 ○○대학교 심리검사실에서 지필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실험실로 안내되어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를 실시하였다.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는 CCTV가 설치된 3평 크기의 실험실에서 실시되었으며, 모-자녀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동안 비디오 녹화가 진행

되었다. 모와 아동은 실험실에 안내되어 한 쪽에 놓여있는 책상에 옆으로 나란히 앉도록 되어 있고, 책상위에는 4~6학년 아동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몇 가지 놀이감들(퍼즐, 공, 만화책, 연필과 종이, 판게임, 레고, play dough, 잡지)이 놓여있다. 이 실험실에는 절차의 표준화를 위해 이 이외의 다른 물건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연구자는 과제가 적혀있는 카드를 주고 이 카드에 적혀있는 대로 활동을 할 것을 설명하였다. 수행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대개 30여분이 소요되었다.

#### 4. 분석방법

ADHD특성이 아동의 비행성향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자녀 상호작용 놀이에 있어서 ADHD 집단과 일반아동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와 비행성향행동 간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PC<sup>+</sup> version 11.0이었다.

### Ⅲ. 연구 결과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ADHD특성과 비행성향행동

ADHD특성이 아동의 비행성향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ADHD특성이 아동

의 전체비행성향행동( $\beta=.42, P<.05$ )의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 구분해 보면, 학교내 부적응( $\beta=.38, P<.05$ )을 15% 설명하며, 사회규준일탈도( $\beta=.38 P<.05$ )를 1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하위척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 아동의 비행성향행동에 대한 ADHD특성의 단순회귀분석

비행성향하위척도	N	B	$\beta$	R <sup>2</sup>	F
가정내 부적응	30	.06	.27	.07	2.13
학교내 부적응	30	.11	.38	.15	4.92*
대인적 부적응	30	.18	.29	.08	2.49
사회규준일탈도	30	.11	.38	.14	4.62*
기 타	30	.06	.24	.06	1.70
비행성향전체	30	.53	.42	.17	5.87*

\*p<.05

#### 2.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에서 ADHD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차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는 일반아동집단과 ADHD아동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전체( $t=3.12, p<.01$ ), 모의 칭찬( $t=3.18, p<.01$ ), 모의 관심( $t=2.19, p<.05$ ), 아동의 공격성( $t=3.36, p<.01$ ), 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반응( $t=2.08, P<.05$ ) 및 아동의 순종( $t=2.25, p<.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아동의 모보다 ADHD아동의 모가 아동의 행동에 뒤따르는 칭찬과 관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일반아동보다 ADHD아동이 공격성, 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리고 부모의 명령에 대한 아동의 순종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3〉 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평가에 대한 ADHD집단과 일반아동집단 간의 차이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	집단구분	N	M	SD	t
1. 모의 정서	일 반	15	6.00	1.13	1.66
	ADHD	15	5.26	1.27	
2. 모의 간섭	일 반	15	5.86	1.30	.52
	ADHD	15	6.13	1.45	
3. 모의 칭찬	일 반	15	7.33	1.54	3.18**
	ADHD	15	5.33	1.87	
4. 모의 관심	일 반	15	8.00	0.75	2.19*
	ADHD	15	7.33	0.89	
5. 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	일 반	15	7.73	0.88	1.60
	ADHD	15	7.20	0.94	
6. 모의 명령빈도	일 반	15	8.46	0.63	0.96
	ADHD	15	8.20	0.86	
7. 모의 처벌수준	일 반	15	8.20	0.86	1.40
	ADHD	15	7.73	0.96	
8. 아동의 사회적 반응	일 반	15	7.26	1.48	0.56
	ADHD	15	7.00	1.06	
9. 아동의 활동수준	일 반	15	7.73	0.88	0.87
	ADHD	15	7.40	1.18	
10. 아동의 공격성	일 반	15	8.46	0.51	3.36**
	ADHD	15	7.26	1.27	
11. 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반응	일 반	15	8.40	0.63	2.08*
	ADHD	15	7.93	0.59	
12.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일 반	15	8.80	0.41	0.41
	ADHD	15	8.73	0.45	
13. 아동의 순종	일 반	15	8.20	0.67	2.25*
	ADHD	15	7.46	1.06	
14. 전 체	일 반	15	7.72	0.31	3.12**
	ADHD	15	7.18	0.58	

\*p&lt;.05 \*\*p&lt;.01

### 3.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와 아동의 비행성향 행동 간의 관계

〈표 4〉에 제시된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와 아동의 비행성향행동간의 상관관계분석표를 비행성향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비행성향전체와 모의 관심( $r=-.35, p<.05$ ) 및 비행전체와 상호작용전체( $r=-.39, p<.05$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내 부적응은 모-자녀 상호작용평가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요인이 없었으며, 학교내 부적응은 모의 처벌수준( $r=-.38, p<.05$ )과, 대인적 부적응은 아동의 순종( $r=-.34, p<.05$ )과, 사회규준일탈도는 모의 관심( $r=-.36, p<.05$ ), 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 $r=-.38, p<.05$ ), 아동의 활동수준( $r=-.36, p<.05$ ), 아동의 공격성( $r=-.35, p<.05$ ) 및 아동의 순종



〈표 4〉 모-자녀 상호작용 놀이평가와 아동의 비행성향행동과의 관계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	비행성향					
	가정내 부적응	학교내 부적응	대인적 부적응	사회규준일 탈 도	기 타	전 체
1. 모의 정서	.19	.03	-.17	-.02	-.04	-.05
2. 모의 간섭	-.14	-.29	-.15	-.02	.12	-.14
3. 모의 칭찬	.08	-.26	-.19	-.27	-.24	-.25
4. 모의 관심	-.02	-.25	-.29	-.36*	-.29	-.35*
5. 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	-.20	-.12	-.23	-.38*	-.21	-.31
6. 모의 명령의 빈도	.28	-.11	.11	-.03	.12	.10
7. 모의 처벌수준	-.14	-.38*	-.33	-.02	-.18	-.32
8. 아동의 사회적 반응	-.07	-.26	-.31	-.18	-.19	-.30
9. 아동의 활동수준	-.04	-.05	-.32	-.36*	-.32	-.33
10. 아동의 공격성	.03	.06	-.07	-.35*	-.15	-.12
11. 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반응	.14	-.26	-.21	-.09	-.12	-.19
12.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04	-.08	-.18	-.20	-.52**	-.29
13. 아동의 순종	-.01	-.04	-.34*	-.37*	-.30	-.33
14. 전 체	.01	-.29	-.33	-.39*	-.34	-.39*

\*p&lt;.05 \*\*p&lt;.01

(-.37, p<.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타요인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r=-.52$ ,  $p<.01$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비행성향은 모의 관심이 적을수록, 전체 모-자녀상호작용의 질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학교내 부적응은 모의 처벌수준이 높을수록, 대인적 부적응은 아동의 순종이 낮을수록, 사회규준일탈은 모의 관심이 적을수록, 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이 적을수록, 아동의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순종이 낮을수록 높았다. 기타비행성향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ADHD특성이 아동의 비행성향을 설명하는 정도

ADHD특성이 전체비행성향행동을 17% 설명하였다. 하위요인별로, 학교내 부적응을 15% 설명하며, 사회규준일탈도를 14% 설명하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이라는 특성은 ADHD아동의 비행성향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적으로 ADHD로 의뢰된 아동들의 65%는 고집부리는 것, 지시에 따르는 것, 불끈 화내는 것, 타인에 대한 언어적 적대감과 같은 문제를 보였다(Loney & Milich, 1982)고 보고하고 있고, 송동호, 정유숙, 이홍식(1993)은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과잉행동유형 집단이 주의력결핍유형집단에 비하여 비행척도, 공격성척도, 외향척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과잉행동과 공격성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ADHD 아동에서品行장애가 공존하거나, 향후品行장애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반영(Lahey, Piacentini, McBurnett, Stone, Hartdagen, & Hynd, 1988)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도둑질, 절도, 가출, 방화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들을 아동기에 함께 보였던 ADHD 아동들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청소년기에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Biederman, Faraone, Milberger, Jetton, Chen, Mick, Greene, & Russell, 1996; Brown, & Borden, 1986; Satterfield, Swanson, Schell & Lee, 1994; Taylor, Chadwick, Hepinstall & Danckaerts, 1996; Weiss & Hechtman, 1993)에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과활동성의 아동들을 장기추적 연구해본 결과에서도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 또는品行장애가 빈번하다는 연구(Barkley, Fischer, Edelbrock & Smallish, 1991; Loeber, Green, Keenan & Lahey, 1995)가 많았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 비추어볼 때, ADHD는品行장애로 빨리 진행되게 촉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대상이 만 9세~11세임을 감안할 때 ADHD특성을 갖는 아동들이 차후에 비행과 연결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ADHD아동에 대한 치료적 중재가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최근의 많은 연구들(오미경, 1997; Arnett, 1992a, b, 1993, 1995)은 비행성향이 높은 아동들도 사회화과정의 중재여부에 따라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기 비행성향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 비행의 전조라고 볼 때, 아동들의 비행성향 예방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바, 병이 발병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손쉽고 효율적인 것처럼 아동기의 비행성향 또한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2. ADHD아동집단과 일반아동집단 간에 모-자녀상호작용 놀이평가의 차이

일반아동의 모보다 ADHD아동의 모가 칭찬과 관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고, 일반아동보다 ADHD아동이 공격성, 모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리고 아동의 순종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ADHD아동의 사회적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모자녀관계를 관찰한 연구에서, 몇몇연구들은 ADHD아동들이 정상아동들에 비해 과제수행 기간에 어머니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말을 많이 하고, 과제를 완료하는데 요청이나 요구를 많이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Campbell, 1973; 1975), 통제집단 아동보다 덜 복잡적이었다(Barkley, 1989; Barkley 등, 1985; Cunningham & Barkley, 1979; Mash & Johnston, 1982; Tallmadge & Barkley, 1983)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어머니도 정상아동의 어머니에 비해 그들 아동의 사회적 주도들에 대해 덜 반응적이었고(Cunningham & Barkley, 1979; Mash & Johnston, 1982), 자녀에게 부정적이며, 제안이나 인정, 자녀의 충동통제를 위한 야단치기, 지시등을 더 많이(Barkley 등, 1985; Cunningham & Barkley, 1979) 하였다. 또한, Barkley(1990)는 부주의하고, 과잉활동적이며, 충동적인 아동은 그 증상 자체 때문에 부모가 시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어머니는 이를 조절하고자 더 많은 통제나 지시, 제안 혹은 격려를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른 관찰연구에서도 ADHD아동의 모는 통제집단의 모에 비해 그들 아동의 사회적 주도들에 대해 덜 반응적이었고(Cunningham & Barkley, 1979; Mash & Johnston, 1982) 좀더 지시적이고 통제적(Barkley 등, 1985; Cunningham & Barkley, 1979; Mash & Johnson, 1982; Tallmadge & Barkley, 1983)이며, 좀 더 불승인(Barkley 등, 1985; Campbell, 1975; Cohen 등, 1983; Mash & Johnston, 1982)하고, 그들은 충동통제에 대해서 좀더 제안을 하였다(Campbell, 1975; Cohen 등, 1983)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들에서는 모의 간섭이나 모의 명령의 빈도 또는 모의 처벌수준과 같이 강한 통제라고 볼 수 있는 변인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좀 더 소극적인 불승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칭찬에 대해 낮은 점수 또는 아동에 대한 낮은 관심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문화적 차이로 생각된다. 즉, 외국의 부모들보다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하여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고자하는 특성이 좀 더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의 상황이 낯선 실험실상황이고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녹화되고 있음을 의식한 모들이 아동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평소의 통제방식이 자연스럽게 재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외적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가정상황에서의 관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듯이 연구들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ADHD아동의 모-자녀상호작용은 일반아동의 모-자녀 상호작용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

에 대한 해석으로 어떤 연구들은 부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어떤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ADHD가 있는 아동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패턴의 결과로 보여진다. 즉, ADHD아동의 증상은 유전적 생물학적인 소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복잡한 원인적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적인 복잡한 원인의 경로를 기술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발달적 경로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와 아동의 비행성향행동간에 관계

전체비행성향은 모의 관심이 적을수록, 전체 모-자녀상호작용의 질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학교내 부적응은 모의 처벌수준이 높을수록, 대인적 부적응은 아동의 순종이 낮을수록, 사회규준 일탈은 모의 관심이 적을수록, 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반응이 적을수록, 아동의 활동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의 순종이 낮을수록 높았다. 기타 비행성향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ADHD아동의 모-자녀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아동의 비행성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비행을 연결시킨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김수연, 김명권, 2002; 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Arnett, 1992a, 1993; 1995) 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의 비행성향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변인을 모-자녀상호작용놀이평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모가 아동의 바람직한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예 : 아동이 과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는 아동의 시도에 반응하거나 함께 도우려는 시도가 없음. 또는 아동이 먼저 주도하는 행동에 응해주지 않음, 또는 무관심)나, 부모가 아동의 불순종에 대해 언어적 처벌(예 : “그렇게 하면 너 장난감 안 사줄거야”, “너는 항상 그 모양이니”, “좀 더 잘 할 수 없겠니?”, “너 때문에 죽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말만 들어”)을 많이 하는 모의 아동은 비행성향이 높았다.

또한, 아동의 비행성향과 관련된 아동의 특성으로는, 아동의 순종, 아동의 활동수준, 아동의 공격성, 질문에 대한 아동의 낮은 반응이 관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모의 선행된 명령에 대해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가, 수행하더라도 모의 많은 양의 재촉이 있은 후에 명령에 따른다거나 모가 경고를 준 후에 명령을 따르는 특성(예 : 모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책상에 와서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동은 계속 공을 벽으로 차며 공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거나, 놀이반죽으로 뭉 만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동은 “싫어, 엄마가 만들어”, 또는 “이것 재미없다. 그냥 다른 것으로 넘어가자”, 집을 그리는 과제에서 좀 자세하게 그릴 것을 모가 요구하자 아동은 “이정도면 됐다. 그만 그리자”)이 강할 때 아동의 비행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나치게 활동적일 때(예 : 과제를 하기 위해 책상에 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을 벽에 던져서 받는 행동을 계속한다거나, 이유 없이 실험실을 왔다 갔다 하며 과제수행에 집중하지 않거나, 아동의 신체의 일부를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아동의 공격성(예 : 모의 명령이나 제안에 논쟁적이고, 파괴적이고 투덜대거나, 던지거나 하는 행동)을 보일 때, 마지막으로 모의 질문에 대해 반응이 낮은 태도(예 : 모의 질문에 아무대답을 하지 않고 책을 본다거나, 손가락을 튕긴다거나, 질문과 관련 없는 다른 질문을 한다거나, 모른다고 답하는 태도)는 아동의 비행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비행성향과 관련된 변인을 보면, 아동의 선행행동에 대한 모의 반응(아동상호작용에 대한 모의 관심, 반응 및 처벌수준)보다는 모의 선행행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아동의 공격성,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모의 명령에 대한 아동의 순종)과 더 중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ADHD특성이 모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끄는 원인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좀 더 분명한 해석을 위해서는 좀 더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모든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아동의 치료적 중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치료적 중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모나 아동의 행동특성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아동의 발달수준과 아동 및 가족의 개별적 강점이나 욕구에 민감해야하는 치료적 상황에서 아동행동 또는 부모행동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어머니-아동 상호작용뿐 아니라 부모의 지식 및 신념을 평가하고, 비행성향이 있는 아동의 치료적 중재를 위하여 부모를 적절히 교육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김수연 · 김명권(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MBTI성격유형과 부모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20(2), 175-183.
- 김지혜 · 소유경 · 정유숙 · 이임순 · 홍성도(2000).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아동의 진단도구로서 부모용 행동 평가지의 타당도 연구.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11(2), 282-289.
- 김현희(1996). 방입된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 연구*, 3(1), 87-109.
- 박미정(1993). 국민학교 아동의 비행화 경향 진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송동호 · 정유숙 · 이홍식(1993). 주의력결핍 과잉활동 장애의 행동특성.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4(1), 106-113.
- 송영혜 · 박진희(1996). 학교부적응 아동의 집단놀이 치료 사례연구. *놀이치료 연구*, 3(1), 129-149.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199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오미경(1997).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과 사회화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옥 정, 오윤희, 정현욱(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 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2), 259-270.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 t : University of Vermont.
- Arnett, J.(1992a). Reckless behavior in adolescence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2, 339-373.
- Arnett, J.(1992b).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reckless behavior : A reply to Jessor. *Developmental Review*, 12, 391-409.
- Arnett, J., & Balle-Jensen, L.(1993). The cultural bases of risk behavior : Danish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4, 1842-1855.
- Arnett, J.(1995). Broad and narrow socialization : The family in the context of a cultural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617-628.
- Barkley, R. A.(1987). *Defiant children : A clinical manual for parent train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Barkley, R.(1989). Hyperactive girls and boys : stimulant drug effects on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Child Physio Psychiatry*, 30, 379-390.
- Barkley, R. A.(1990).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 handbook for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 Guilford Press.
- Barley, R. A., Fischer, M., Edelbrock, C. S., & Smallish, L.(1991). The adolescent outcome of : An 8-year prospective follow-up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546-557.
- Barkley R, Karlsson J., & Pollard, S.(1985). Effects of age on the mother-child interaction of ADHD and normal boy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3, 631-637.
- Biederman, J., Faraone, S. V., Milberger, S., Jetton, J. G., Chen, L., Mick, E., Greene, R. W., & Russell, R. L.(1996). Is childhood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 precursor to adolescent conduct disorder? Findings from a four-year follow-up study of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9), 1193-1204.
- Brown, R. T. & Borden, K. A.(1986). Hyperactivity in adolescence : Some misconceptions and new dire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5, 194-209.
- Campbell, S. B.(1973). Mother-child interaction in reflective, impulsive, and hyperactiv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341-349.
- Campbell, S. B.(1975). Mother-child interaction : A comparison of hyperactive, learning disabled and

- normal boy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 51-57.
- Cohen, N., Sullivan, J., Minde, K., Novak, C., & Keens, S.(1983). Mother-child interaction in hyperactive and normal kindergarten-aged children and the effect of treatment. *Child Psychiatry Hum Dev.*, 13, 213-224.
- Cunningham, C., & Barkley, R.(1979). The interaction of normal and hyperactive children with their mothers in free play and structured tasks. *Child Development*, 50, 217-224.
- Forehand, R., & McMahon, R.(1981). *Helping the noncompliant child : A clinician's guide to parent train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Gitlin-Weiner, K., Sandground, A., & Schaefer, C. (2000).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John Wiley & Sons, Inc.
- Lahey, B. B., Piacentini, J. C., McBurnett, K., Stone, Pl, Hartdagen, S., & Hynd, G.(1988). Psychopathology in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conduct disorder and hyperactiv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 163-170.
- Loeber, R.(1990). Development and risk factors of juvenile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42.
- Lober, R., Green, S., Keenan, K., & Lahey, B.(1995). Which boys will fare worse? Early predictors of the onset of conduct disorder in a six-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499-509.
- Loney, J., & Milich, R.(1982). Hyperactivity, inattention and aggression in clinical practice. In D. Routh & M. Wolraich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Vol 3.). Greenwich, CT : JAI Press.
- Mannuzza, S., & Klein, R.(1992). Predictors of outcome of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 G. Weiss(Ed.).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hiladelphia : Saunders.
- Mash, E.J., Terdal, L., & Anderson, K.(1973). The response class matrix : A procedure for recording parent-child interac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63-164.
- Mash, E., & Johnston, C.(1982). A comparison of mother-child interaction of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1371-1381.
- Mash, E., & Terdal, L.(1991). *Play assessment of noncompliant children with the response-class matrix*. New York : Wiley.
- Meyers, C. L., McBride, S. L., & Peterson, C. A. (1996). Transdisciplinary Play-based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 An examination of social validity. *Topics in Early Childhood*, 16, 102-126.
- Pelham, W. E.(1993). Pharmacotherapy for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 Psychology Review*, 22, 199-227.
- Satterfield, J. H., Swanson, J. M., Schell, A., & Lee, F.(1994). Prediction of antisocial behavior i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boys from aggression/defiance scor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 185-190.
- Smith, D. T.(2000). Parent-Child Interaction Play Assessment. In K. Gitlin-Weiner, A. Sandground & C. Schaefer, *play diagnosis and assessment*. John Wiley & Sons, Inc.
- Tallmadge, J., & Barkley, R.(1983). The interactions of hyperactive and normal boys with their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1, 5654-579.
- Tarver-Behring, S., Barkley, R., & karlsson, J.(1985).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of hyperactive boys

- and their normal sibling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202-209.
- Taylor, E.(1995). Dysfunctions of attention. In D. Cicchetti & D. J.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New York : Wiley-Interscience.
- Taylor, E., Chadwick, O., Hepinstall, E., & Danckaerts, M.(1996). Hyperactivity and conduct problems as risk factors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 1213-1226.
- Weiss, G., & Hechtman, L.(1993). *Hyperactive children grown up (2n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2004년 2월 29일 투고 : 2004년 3월 28일 채택

〈부록 1〉 부모-자녀상호작용 놀이 평가(P-CIPA)의 예

A. 부모의 정서(하나에 동그라미)

1. 부모에게서 정서가 관찰되지 않음
2. 1과 3 사이
3.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전형적으로 부정적 정서
4. 3과 5 사이
5. 아동과의 놀이에서 약간의 즐거움이 보임
6. 5와 7사이
7. 아동과의 놀이에서 중간정도의 즐거움이 보임
8. 7과 9 사이
9. 자유자재의 정서가 관찰됨 : 부모는 아동과의 놀이에서 공공연히 즐거움을 보임

B. 부모의 간섭

1. 부모는 놀이를 이끌고, 질문을 하고, 명령을 하면서 아동의 놀이를 끊임없이 구조화시킴
2. 1과 3 사이
3. 부모는 명령으로 놀이를 이끌고, 놀이시간의 절반을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간섭함
4. 3과 5 사이
5. 부모는 질문을 하면서 간섭을 하지만, 아동이 놀이를 이끌도록 허용도 함
6. 5와 7 사이
7. 부모는 아동의 놀이에 간섭하지 않음
8. 7과 9 사이
9. 부모는 간섭하지 않으며 아동의 놀이를 따를 수 있고 간접적으로 아동의 놀이를 격려함(예, 활동을 모방)

C. 부모의 칭찬

1. 칭찬이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함
2. 1과 3 사이
3. 칭찬이 관찰되지 않음
4. 3과 5 사이
5. 단지 과제에 대한 반응에서만 약간의 칭찬이 관찰됨
6. 5와 7 사이
7. 완성된 과제 및 끝내려는 시도에 대한 반응에서 중간정도의 칭찬이 관찰됨
8. 7과 9 사이
9. 행동을 완성할 때 그리고 시도 혹은 노력 모두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함

E. 아동의 활동 수준

1. 아동은 지나치게 활동적임; 대부분의 시간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일어남
2. 1과 3 사이
3. 아동은 평가 기간 동안에 과도하게 활동적이나 조용한 시간도 가짐  
(예, 처음에는 활동적이고, 나중에는 조용해짐)
4. 3과 5 사이
5. 아동은 기간의 약 50%동안 과도하게 활동적임
6. 5와 7 사이
7. 아동은 특정 상황 동안에는 과도하게 활동적이나 요구되는 과제 이외에는 과도한 신체적 활동이 없음
8. 7과 9 사이
9. 아동의 활동수준은 과제에 적절함; 과도한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음